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oeil 표현에 관한 연구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f Trompe l'oeil Expressions in Modern Fashi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ose Since 2000-

Sun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9년 10월 27일), 수정일(1차 : 2009년 11월 15일, 완료일 : 2009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2009년 12월 21일)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xpress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rompe l'oeil in modern fashion. The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Trompe l'oeil, examines the Trompe l'oeil in the surrealist works from which the Trompe l'oeil derives from, and analyzes the works that have emerged since 2000. The study used a collection of magazines such as Vogue, Gap, Fashion News, and the Internet.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expression types of Trompe l'oeil in modern fashion were seen in the human body, the wearing style, the details, and accessory effects of clothes. The modern fashion design using the Trompe l'oeil based on such external expressions wa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irst, the fashion design destroyed the concept of common sense and expressed the purity of the human spirit by revealing the human body hidden in clothes from the combination of clothes and the human body with surrealism. Second, the details or accessories of clothes were printed or painted as if they existed. Pleasure was expressed by applying Trompe l'oeil to the wearing methods and forms of clothes through the optical illusion of materials or colors. Third, the effects of an optical illusion were displayed by transforming and distorting the wearing style and reversing the front, back, exterior and interior of clothes; this optical illusion characterized the deconstruction express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ideas.

Key words: Trompe l'oeil, Surrealism, Pleasure, Deconstruction; 눈속임, 초현실성, 유희성, 해체성

I. 서 론

패션은 한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표현문화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예술사조의 흐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많은 디자이너들이 순수예술작품에서 영감을 얻고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현대에 와서는 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영역에서 융합,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패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도 각 예술양식에 나타났던 새로운 기법과 소재에 따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공통된 표현기법을 보이면서 현대패션에 새롭고 독창적인 영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미 개념이나 현대패션이 추구하는 새로운 이상은 과거 이분법적이고 획일화된 미적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y6341@sunchon.ac.kr

가치기준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 넓게 확대되어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뿐만 아니라 전위적이고 해체적이며 초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미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달할수록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수반되는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술작품을 비롯한 대중매체와 디자인 산업에서도 유희적인 표현이 크게 부각되어 지고 있다.

미술양식의 독창적인 표현기법 중 하나인 Trompe l'oeil은 실제의 것을 보는 듯한 착시 또는 착각을 주는 눈속임기법으로 미술의 전개과정뿐만 아니라 현대패션디자인에 보다 새로운 창조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Trompe l'oeil에 관한 선행연구(도규희, 1997; 손영미, 조영아, 2002; 우세희, 2001; 원명심, 2006; 이경은, 1996; 조은, 2004; 조진숙, 2004)는 단편적인 Trompe l'oeil의 기법이나 예술작품과 비교한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또는 초현실주의 예술가의 작품, 초현실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에서 간단하게 언급될 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Trompe l'oeil 표현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다양한 조형양식을 선사하여 새로운 형식의 디자인을 탄생시킨 Trompe l'oeil의 표현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특정 미술기법을 패션이라는 고유의 수단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패션디자인의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와 창작영역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패션과 미술기법의 접목을 통한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패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내용은 Trompe l'oeil의 개념과 그 발생의 근원이 된 초현실주의 작품에서의 Trompe l'oeil를 문헌고찰하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Vogue, Gap, Fashion news 등의 패션지, 작품집, 인터넷 등의 실증적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서 Trompe l'oeil 기법을 표현한 작품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Trompe l'oeil의 개념

Trompe l'oeil은 프랑스어로 실물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림이라는 뜻으로(불한사전, 1993)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림에 표현된 대상물들을 실제로 존

재하는 것처럼 정밀하고 세밀하게 묘사하여 현실의 것으로 느껴지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눈속임 기법이다. Trompe l'oeil 기법은 속이기 위해 고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언제나 문제없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객은 이미지를 처음 보고 놀라게 되나 자신의 시선을 계속해서 바로잡고 조정해서 의심과 확신의 감정을 번갈아가며 갖게 된다(손영미, 조영아, 2002).

이러한 기법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시도 되었으나 그때는 주로 공간감을 어지럽히는 환상을 묘사하는데 이용되었고, 근세 네덜란드에서 세속적인 물체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이 뒷받침된 정물화의 변종으로서 나타나기도 하였다(월간미술, 2002). 대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은 보통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초현실주의에서는 테페이지망이나 편집광적인 비판방법에 바탕을 둔 이 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Trompe l'oeil은 넓은 의미로 착각기법 또는 착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착각은 모든 감각에서 인정되는 반면 시각에서의 착각만을 특히 주목하여 착시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조진숙, 2004). 착시란 크기나 형태, 길이나 거리, 색채나 움직임 등과 같은 하나나 둘 이상의 시각적 자극 속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지각을 말하며 현실에 있는 것이 왜곡되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유한태, 1987). 착시현상은 대상의 물리적 조건이 동일하다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경험하게 되는 지각현상으로 우리에게 재미있고 신비스러운 시각경험을 하게 해준다.

2. 초현실주의와 Trompe l'oeil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약 20년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인 문학, 예술운동으로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는 1917년에 공인된 시인 Apollinaire의 희곡 '띠레시아의 유방(Les Mamelles de Tiresias)'의 서문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1924년 Andre Breton이 제1차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하나의 운동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 선언문에서 초현실주의란 순수한 심적 자동현상으로 이성이 개입되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모든 도덕적, 예술적 속박, 선입관에서 벗어나 사고를 기술하는 것이라 하였다(최해주, 2004). 초현실주의는 인간, 사회질서, 윤리,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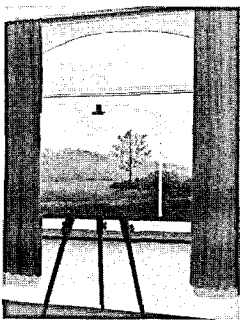
까지 부정하는 허무적인 다다이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내면세계인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인간정신의 해방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상상을 종합하여 초현실세계를 구현시키고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론의 토대로 삼고 새로운 표현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오토마티즘, 콜라주, 데페이즈망, 프로타주 등이 주요한 예들이다(이영민 외, 2007).

오토마티즘이 의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을 형상화하였다면 데페이즈망은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초현실주의적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데페이즈망은 전치, 전위법, 위치전환법 등으로 번역되는데, 낮익은 물체라도 그것이 원래 놓여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내어 뜻하지 않는 장소에 놓이게 되면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쇼크를 주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경이와 신비에 가득 찬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했는데, 이런 그림이 보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최해주, 2004). 이러한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 중 하나가 세밀한 묘사로 실제의 것을 보듯 한 착각을 주는 기법인 Trompe l'oei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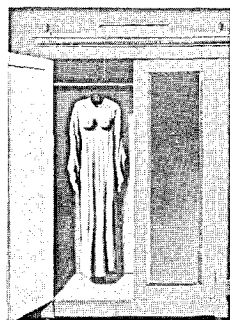
<그림 1>은 Rene Magritte의 작품으로 그림 속의 그림이라는 Trompe l'oeil의 표현방법을 볼 수 있는데 관객들은 그림의 두께를 말해주는 흰 모서리와 받침대의 높이를 통해 비로소 이 그림의 이중성을 깨닫게 된다. 즉 현실의 오브제가 점유하는 3차원 공간과 그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캔버스의 2차원 공간 간의 모순관계를 통해 이미지에 모호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최현숙, 2003). 또 Magritte의 작품인 '달콤한 진실'

역시 하얀 형질로 덮인 탁자 위의 정물 오브제를 묘사한 것으로 오브제와 탁자는 단순히 벽들로 된 벽 위에 그려진 것이다. 즉 그림이 평평한 2차원의 공간에 존재함으로써 결국 3차원 공간의 오브제는 더 이상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Jacques, 1990). 이러한 단순한 이미지를 통하여 재현이나 묘사의 전체과정에 대해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데, 결국 외부와 내부 세계, 환상과 현실을 이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Trompe l'oeil 기법의 초현실적이고 끝없이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손영미, 조영아,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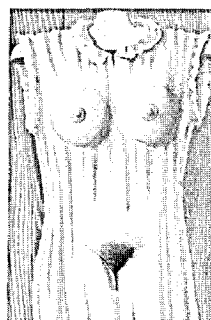
또한 인체를 응용한 것은 Trompe l'oeil 표현방법 중 자주 등장하는 방법으로 인체에 전혀 다른 낮익은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그림이 인체를 표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낮익은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 쇼크를 주는 동시에 신비로움을 유발해내기도 한다(장 루이, 1957/1990). <그림 2>는 여성의 유방이 옷장에 걸려있는 투과성 있는 나이트가운과 혼합되어 완전히 성숙된 관능미로 존재하여 표현된 것이고, <그림 3>은 여성인체의 일부분과 의복의 유사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동시에 이미지화 시킴으로써 시각적 충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림 4>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두개의 신발 끝은 발가락이 있는 발로 변해있다. 신발 속에 들어있는 발이란 우리의 사고로는 신발과 늘 함께 있는 것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신발만이 보일 뿐 발은 보이지 않는다. 즉 유사한 두 현실을 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혼동과 충격을 주고 있다(손영미, 조영아, 2002). Anne Marie Beretta의 작



<그림 1>
Rene Magritte,
The Human Condition I,
1934



<그림 2>
Rene Magritte,
Homage to Mark Sennett,
1934



<그림 3>
Rene Magritte,
Philosophy in the Boudoir,
1948



<그림 4>
Rene Magritte,
The Red Model,
1935



<그림 5>
Anne Marie Beretta,
Toe Sandal,
1982



<그림 6>
Adelle Lutz,
Urban Camouflage Clothing,
1986



<그림 7>
Cecil Beaton,
Fashion Photograph,
1938



<그림 8>
Dominique Lacoustille,
Window Dress,
1985

품인 <그림 5> 역시 Rene Magritte의 작품과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눈속임을 통해 발가락이 드러난 토 샌들로 착각하게 하여 유희적인 이미지까지 갖게 한다. 즉 살아있는 발과 살아있지 않는 신발, 그리고 감추는 신발과 감추어지는 발의 상호모순적인 명제와 반명제가 하나로 종합되어 새로운 오브제를 창조하는 것이다(강옥민, 2007).

이와 같이 신체와 의복과의 유사관계는 채색된 건축물의 외벽과도 조화를 이루어 착시현상을 느끼게 하는데, Adelle Lutz의 작품인 <그림 6>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벽돌처럼 프린트된 의상을 입고 벽돌로 이루어진 벽 앞에서 서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어 모델들의 존재가 건물의 일부분인 듯한 상태를 하나의 관점에서 관찰되도록 한 것이다. 또 회화가 아닌 사진을 통해서도 이러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Cecil Beaton의 작품인 <그림 7>의 사진 속 모델은 얇은 막으로 된 액자의 프레임을 직접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으로 그림속의 그림이 아닌 사진 속의 그림으로 이미지에 모호성을 나타내며, <그림 8>은 창문형태를 한 의복을 착용하고 창문을 향해서 있는 모델의 사진을 통해서 개념적인 모호성과 착시의 현상을 느끼게 하고 있다.

Giorgio Chirico를 비롯하여 Rene Magritte, Salvador Dali 등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Trompe l'oeil의 표현은 오늘날 극사실적 화법과 에어 브러쉬 등의 방법을 통해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효과적으로 표현되어지고(조은, 2004)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3. Elsa Schiaparelli에 의해 표현된 Trompe l'oeil

패션에서 Trompe l'oeil 기법이 응용되기 시작한 것은 초현실주의자들과의 교분을 통하여 초현실주의 패션의 탄생을 가져온 Elsa Schiaparelli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Salvador Dali, Jean Cocteau, Christian Bernard 같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한 시대의 정신을 공유하여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의상과 순수예술의 두 범주를 분리시켜왔던 기존의 개념을 붕괴시켜 현대패션에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이영민 외, 2007).

그녀는 초현실주의의 오브제인 꽃, 나비, 구두, 입술 등 평범한 주변의 사물들을 단추나, 모자, 액세서리 등으로 이용하여 단순한 기능성 외에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장식성과 조형미를 부여하였고, 니팅기법이나 자수, 프린트 등을 이용하여 Trompe l'oeil 기법을 표현하였다. <그림 9>는 네크라인에 리본모양을 짜 넣어 실제로 리본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웨터로 이 작품은 예술적 작품이라는 찬사와 함께 미국과 프랑스 『Vogue』에 소개되었으며, Dali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Tear Dress’는 찢어진 느낌으로 프린트하여 실제와 가상의 찢어진 표현을 함께 사용한 Trompe l'oeil 기법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 Jean Cocteau의 그림을 자수 디자인의 모티브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림 10>은 두 개의 옆얼굴에 의해 꽃병으로 표현되는 착시를 느끼게 한 것이다. 그녀는 의상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에 있어서도 검정 스웨이드로 만든 장갑의 겉면에 빨간 뱀가죽으로 손톱을 붙이거나, 다이아몬드로 눈과 귀를 장식한 Profil Hat 등 독창적인 디자인들로 Trompe l'oeil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9>
Elsa Schiaparelli,
1927



<그림 10>
Elsa Schiaparelli,
1937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oeil의 표현 유형과 특성

1.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oeil의 표현 유형

착시현상의 표현방법인 Trompe l'oeil 기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현대패션에 있어서 이러한 기법의 도입은 디자인에 다양한 표현 효과를 제시하면서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표현으로 디자이너들에게 풍부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 Trompe l'oeil 기법의 유형은 앞장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그림 속의 그림이나, 인체의 응용, 채색된 건축물의 외벽과 같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Trompe l'oeil 기법을 패션에 처음으로 도입한 Elsa Schiaparelli의 작품에서의 표현 유형은 인체의 응용, 자연물과 일상용품의 이동 및 의복의 디테일효과를 위한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있어 Trompe l'oeil의 외적 표현 유형을 손영미, 조영아(2002)는 조화, 인체의 응용, 앞과 뒤, 겉과 안, 미완성의 완성, 디테일로 구분하였으며, 조진숙(2004)은 두 별 작용효과, 디테일효과, 액세서리효과, 인체노출효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oeil의 표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초현실주의 예술에서 주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부위의 전치를 통해 감춤과 드러냄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경우, 의복의 형태나 앞과 뒤 등 착장방식에서의 해체로 이용된 경우, 그리고 의복 구조 및 디테일의 재현에 있어서의 착시에 적용된 경우로 나타났다.

1) 신체부위의 전치

Trompe l'oeil 기법 중 가장 애용되는 표현방법 중 하나로 초현주의 예술작품 속에서도 인체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신체부위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가슴, 손, 몸통 등으로 특히 가슴이나 몸통,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표현들은 의복 밑에 있는 신체를 의복 위로 표현해냄으로써 감춤과 드러냄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과 같은 몰딩기법을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된 돌출된 가슴은 성적인 유희과 함께 현대사회에 있어 여성의 파워를 과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인간 내면에 대해 비합리적인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순수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김명주, 1993).

일반적으로 어떠한 오브제에 대한 관찰을 통한 모방은 예술의 기원이 되는데, 특히 인간표현을 중심으로 전개된 서구의 회화는 르네상스 이래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회화를 해부학과 광학에 연계시키며 균형, 조화, 원근법을 탐구함으로써 인간표현의 전통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사실주의적 과학성에 근거한 여러 기법들은 공간표현과 명암에 의한 모델링과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한 인체묘사를 발달시켰다(권기영, 조현주, 2002). <그림 12>는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형상을 나타내는 나체프린트의 보디슈트로 사실적이면서도 원시적인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13>은 인체 내부의 혈관들을 살색 보디슈트 위에 비즈로 장식하여 투명인간을 보는 듯한 착시를 나타낸다.

또 손과 같은 인체 일부분의 위치를 전환시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림 14>와 같이 옷깃을 여미는 포즈의 장갑 낀 손의 모양으로 재킷의 여밈 부분에 덧대어 위트 있는 착시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Trompe l'oeil 표현을 통해 신체의 각 부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낯선 곳에 위치하며, 신체와 의복을 동시에 옷이라는 하나의 화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2) 착장방식에서의 해체

패션에서의 Trompe l'oeil 기법은 의복의 착용형태에 응용되기도 하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의상형태를 결합하여 디자인된 경우나 착장의 형태 또는 옷의 앞과 뒤를 뒤바꾸어 나타내는 등 기발한 발상들이 조합되어 표현되었다.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은 착시의



<그림 11>
Jean Paul Gaultier,
2003 S/S



<그림 12>
Icarius,
2002 F/W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2003 F/W



<그림 14>
Comme des garçons,
2003 F/W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미의 원리 파괴, 노출, 의복의 앞뒤를 혼동시키는 표현, 부조화의 조화 등 이러한 착장방식의 왜곡은 상식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시선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유인자극으로 작용하며 유희적인 측면과 동시에 착시에 의해 나타나는 해체성의 한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5>는 완성된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모델의 몸에 그대로 붙여놓은 듯이 연출되었으나 마치 착용된 것처럼 착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착장방법의 해체를 표현하고 있다.

보통 다른 종류의 의상형태를 결합시켜 디자인하게 되는 경우 다른 색상이나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한 벌의 의상을 두 벌의 의상으로 착각하게 하는데, <그림 16>은 한 벌의 재킷이지만 겹침에 의해 두 벌의 재킷을 착용한 것처럼 착시의 효과를 나타냈고, <그림 17>

역시 한 벌의 원피스이지만 짧은 볼레로 형태로 비즈를 장식하여 두벌의 착용효과를 나타냈다. 또 색상이나 소재, 구성선에 변화를 주어 형태나 착용상태의 착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림 18>과 같이 비대칭으로 구성된 작품의 컷팅된 부분은 살색의 레오타드로 착용되어 마치 누드상태로 느껴지게 하고 있으며, <그림 19>는 투명소재를 이용하여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 스커트만을 착용한 것과 같은 착시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그림 20>은 과거 스키아파렐리가 디자인한 거꾸로 입는 재킷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작품으로 재킷을 거꾸로 재단하여 마치 옷의 앞과 뒤가 뒤바뀐 것 같은 착시를 갖게 하여 해체적 의미를 제공한다.

또 바디페인팅이나 메이크업을 통한 Trompe l'oeil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림 21>은 2004년 뉴



<그림 15>
Jean Paul Gaultier,
2003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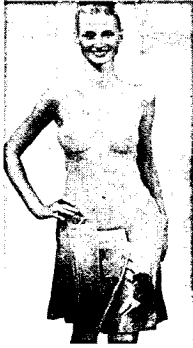
<그림 16>
A.F. Vandervorst,
2004 F/W



<그림 17>
Chanel,
2001 F/W



<그림 18>
Martin Margiela,
2007 S/S



<그림 19>
Pascal Humbert,
2001 S/S



<그림 20>
Moschino,
2006 S/S



<그림 21>
Mac,
2004 F/W



<그림 22>
Yohji Yamamoto,
2003 F/W

욕 패션 위크 기간 중 열린 Mac의 바디페인팅으로 깊게 파인 탑과 짧은 숏 팬츠를 착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그림 22>는 바디페인팅을 통해 채색된 상체로 인해 마치 두 벌의 옷을 착용한 것과 같은 착시의 효과를 나타냈다.

3) 의복구조 및 디테일의 재현

의복의 장식적인 디테일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성의 표현임과 동시에 미의 추구를 위한 인간 본연의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패션에서의 착시는 외모를 조절하고 문화적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착시에 속달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미의 이상을 창조하기 위해 착시를 조작할 수도 있다(이경은, 1996).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oeil은 액세서리의 효과를 표현하거나 의복에 다양한 디테

일을 가미하여 단순한 재미의 추구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장식적인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는데, 주로 프린트나 니팅기법을 이용해 표현되었다.

<그림 23>은 니팅기법을 통해 타이, 벨트, 포켓 등 실체가 아닌 의복디테일의 형태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4>는 블라우스에는 리본이, 스커트에는 층층이 러플을 잡은 것 같은 프린트로 착시효과를 사용하였다. 또 <그림 25>와 같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재킷의 디테일이나 블라우스의 러플, 스커트의 주름, 벨트 등을 펜으로 그린 것 같은 표현으로 나타냄으로써 유머적 효과를 나타냈다. 펜으로 그리거나 프린트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림 26>과 같이 단추와 주머니, 포켓 등을 컬러 스프레이로 뿌리고 그 스프레이가 흘러내리는 듯한 위트까지 표현하고 있으며, 스커트에 체인벨트를 프린트하거나, 넥라인 부분에 넥



<그림 23>
Sonia Rykiel,
2008 S/S



<그림 24>
Cacharel,
2001 F/W



<그림 25>
Moschino,
2001 F/W



<그림 26>
Cheap & Chic,
2008 S/S

타이, 리본 등 여러 액세서리들을 프린트, 콜라주 또는 니트기법으로 표현하여 착시의 효과를 나타냈다.

2.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oeil 표현의 특성

현대패션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현상들은 하나의 표현수단으로서 끊임없이 현대인들의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특히 문화예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오늘날 현대패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요소와 원리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다양하고 창조적인 역동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아래 Trompe l'oeil 기법을 이용한 현대패션디자이너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적 표현을 바탕으로 Trompe l'oeil를 이용한 현대패션디자이너에 담겨져 있는 특성은 초현실성을 기본으로 한 유희성, 해체성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Trompe l'oeil은 초현실주의에서 파생된 하나의 표현기법으로 이를 이용한 현대패션디자이너는 초현실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초현실주의는 현대패션을 조형예술적 표현으로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획일화된 복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전위적인 감각으로 패션과 예술의 조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신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패션에 있어 오늘날 신체는 하나의 물질적 대상이 아닌 예술표현의 주체적인 대상으로 대두되었고 현대패션에 있어 신체형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표현들은 초현실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의복과 신체라는 친근한 대상물의 결합에서 Trompe l'oeil의 기법을 이용해 의복 내에 숨겨진 신체를 밖으로 드러내 상식의 개념을 파괴함과 동시에 감춤과 드러냄의 역설적인 관계를 강조하였고 은유와 착시, 전환 등을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인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인간정신의 순수함을 표현하였다.

둘째, 패션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감성을 표현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겁고 심각한 것을 회피하고 대신 가볍고 오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 현대패션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놀람과 웃음을 느끼도록 하며 심각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유희적 이미

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복잡한 현실에 대한 반동으로 문화예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지함 대신 가벼움을 추구하고, 놀람과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희의 중요한 특징은 자연스러운 것 바로 자유이며, 유희의 즐거움은 억압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의미에서가 아닌 그 자체로 즐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패션에 있어서도 놀람과 웃음을 느끼도록 하며 심각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유희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는데, Trompe l'oeil의 기법을 이용해 칼라나 벨트, 주머니 등을 프린트하거나 그려 넣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재나 색상의 착시를 통해 의외적인 웃음을 유발하고, 또 의복의 착용방법과 형태에 적용시켜 재치와 유희성 있는 유희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의복의 기능성이나 과시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감각의 표현으로 어떠한 분석이나 논리적 해석을 거부하는 개성표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기존 모더니즘 문화현상에 대한 반발로 탈모더니즘 현상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해체패션의 특성은 그 외적 특성에 있어 고정관념을 벗어난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한다. 해체주의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파괴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구조주의 내부에서 해체 혹은 탈구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특성으로는 인용, 텍스트와 글쓰기, 차연, 보충, 산중, 흔적, 현존과 부재,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Dis, De 탈현상 등을 들 수 있다(김선영, 2007). 이에 따라 착장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체되고 신체 위에서 다시 재창조되어 절대적인 개념 대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불확정적인 형태 혹은 열린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열린 형태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개방적인 시도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욕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현대패션에 있어 Trompe l'oeil를 이용한 착장방식의 변형 및 왜곡, 겹침, 옷의 앞과 뒤, 겉과 안을 뒤바꾸어 착시의 효과를 나타낸 것 또한 착시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표현되는 해체의 특성을 표방한다 하겠다.

IV. 결 론

Trompe l'oeil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펼

쳐진 상상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고, 미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었듯이 현대패션에 있어서는 보다 풍부한 창작디자인의 세계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oeil의 표현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디자인에 있어 창작영역의 확대와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착시현상의 표현방법인 Trompe l'oeil 기법은 현대패션에 있어 Elsa Schiaparelli를 선두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오고 있는데, 연구결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oeil의 표현 유형은 가슴이나 몸통, 손,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표현 등 신체부위의 진치, 의복의 착장방식에서의 해체, 의복구조 및 디테일의 재현에 있어서의 착시를 이용한 경우로 나타났으며,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주로 프린트나 그림, 니팅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의복형태의 착시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재나 색상 또는 비딩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외적 표현을 바탕으로 Trompe l'oeil을 이용한 현대패션디자인에 담겨져 있는 특성은 초현실성을 기본으로 한 유희성, 해체성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초현실성으로 의복과 인체라는 친근한 대상물의 결합에서 의복 내에 숨겨진 인체를 밖으로 드러내 상식의 개념을 파괴함과 동시에 인간의 내면세계인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인간정신의 순수함을 표현하였다. 둘째, 의복의 디테일이나 액세서리를 프린트하거나 그려 넣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소재나 색상의 착시를 의복의 착용방법과 형태에 적용시켜 재치와 유희성 있는 유희성을 표현하였다. 셋째, 착장방식의 변형 및 왜곡, 옷의 앞과 뒤, 겉과 안을 뒤바꾸어 착시의 효과를 나타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표현되는 해체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Trompe l'oeil은 패션에 있어 독창적이고 유희성 있는 디자인으로 현대패션에 많은 영감을 주며 신선한 감각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오늘날 패션과 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각자의 경계를 넘어 서로 상호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새로운 융합의 트렌드를 창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예술장르의 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전개는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

에 또 다른 영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Trompe l'oeil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장르의 여러 기법들을 이용하여 패션디자인이 일상적인 사고를 초월하여 창작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미래 패션에 있어서도 더욱 다양하게 응용되어 창작 디자인의 전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옥민. (2007). 르네 마그리트 회화의 데페이즈망 기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기영, 조현주. (2002).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체표현 분석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7), 173-191.
- 김명주. (1993). 현대복식과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영. (2007). 현대패션에 표현된 넥타이의 미적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5(5), 15-23.
- 도규희. (1997).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통한 초현실주의 복식의 내적 의미고찰에 관한 연구. *경일대논문집*, 14(1), 889-906.
- 불한사전. (1993). 서울: 민중서림.
- 손영미, 조영아.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l'oeil에 관한 연구. *복식*, 52(4), 155-171.
- 우세희. (2001). 컴퓨터를 활용한 유머이미지 패션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명심. (2006). 엘자 스키아파렐리의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조형연구*, 14, 5-24.
- 월간미술. (2002).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 유한태. (1987). *착시의 조형심리*. 서울: 월간시각디자인.
- 이경은. (1996). *Visual Illusion을 응용한 현대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민, 이연희, 박재옥. (2007). 빅터 & 롤프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 *복식문화연구*, 15(2), 352-367.
- 장 루이, 페리에. (1957). *20세기 미술의 모험 I*. 김정화 옮김 (1990). 서울: 에디피인터내셔널.
- 조은. (2004). 르네 마그리트의 영향을 받은 현대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진숙. (2004). 현대패션에 표현된 Trompe l'oeil 기법 연구. *복식문화연구*, 12(5), 880-896.
- 최해주. (2004). 초현실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5(1), 145-153.
- 최현숙. (2003). *르네 마그리트 회화의 이미지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Jacques, M. (1990). *Magritte*. New York: The overlook press.